

&lt;특별기고&gt;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6)



과격한 언어로 논박한 울곡의 모습은 안타까운 것이었다. 후세에 학자들의 '동고의 안목과 경륜(인재등용과 경세사상 등)은 퇴계와 율곡을 합해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참고할 만하다.

남북한의 전통철학에 대한 "한국철학사"와 "조선철학사"의 서술 방향과 내용 및 평가와는 다르게, 즉 그들이 부정하거나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을 변형하여 담습하고 있는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현재 남북한의 현실 정치 사회상황에 대해 양지를 할 후 없는 양비론으로써 비판해 왔다. 한국(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인·연구자, 교수로서 과거 전통사상을 비판 계승하여 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망을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시각에서 나오는 자세인지는 몰라도 대개 바람직하게 생각해 오고 있다.

한국의 학계와 사회에서 진실과 사실이나 정의와 진리와 동떨어진 기준의 학설, 즉 학교 스승이나 선배들의 주장과 논의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로 정통화·화석화되었는데 왜곡 날조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실을 올바로 분석비판하고 수정 보완하여 미래를 개척조망 하여 새로운 천하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과 시대정신은 이러한 심각한 오류와 장애가 있다라도 대충 묵인하거나 동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다. 심하게는 학문연구의 영역도 담습하며 개척할 생각도 하지 못하거나 할 생각을 해도 다행을 데미지를 생각하면 짐작해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간단한 예로서 기존에 이미 존중된 '선현(文廟從祀 등), 성인(聖人)이나 부자(夫子)'로 까지 호칭되는 인물에 대해 새로운 견해로 관련 문집과 역사적 사실을 논거로 서술 논의한 논문에서, 비판적 견해가 보이면 관련 학문분야의 학회지(학진 등재지 등)에 심사를 통과하여 상재될 확률이 희박해 진다.

특히 약 10년 전부터 정치·경제나 사회·문화 등 전문분야 직업인(정치·법조인과 의사)들과 군대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죄수들까지 인문학 강강나 교육의 필요성을 유행처럼 떠들고 실시하다가 최근 시들해졌다. 그런데 최근 검사와 의사(의대생)들의 적폐문제와 시위 등으로 그들의 일반 국민(시민)에 대한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다.

이른바 '문·사·철'로 표현되는 인문학 가운데 철학과 역사학을 그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활발해야 될 창조적 연구 풍토가 가장 문제로 산적한 분야로 보기도 한다. 수년 전에 제자의 (철학)박사논문 심사 때 선배 원로학자와 평소 때 서로 학문적 외우(外友)로서 '호령호제'하며 지내고 비교적으로 보다 친밀한 주제로 학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신문·방송에도 게재와 출연하는 후배 중진학자의 발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한다면, 이른바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는 이덕일 박사가 눈거울 들어 '기존학계의 오류와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 갔다.'고 생각하고 또한 3~40년 전부터 내가 비슷한 견해를 표한 것이 여러 곳에 있었기에,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언지하에 '그 자식 거 정신 빠진 친구요. 정신병자 같은 친구의 영터리 소립니다.'라고 하기야...

한동안 명하니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호에 계속)

## 2020년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능동장학회는 대종회 정관 규정대로 대종회에서 운영해야 바람직



안동권씨파종회  
장협의회(회장 권  
기호)는 10월 29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대종회 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안동권  
씨 15개 파(派) 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7 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5개 파  
종회장 이외에 관계동, 권기덕 파종회장협  
의회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  
친회장, 권오극 안동향교 전교, 권오의 대  
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이귀화 안동종  
친회 사무국장, 권기육 복야공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파종회장협의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걸쳐서 15개 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봄에 개최할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가을 회의는 15개 파 회장만 참석하고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의에 불참시켰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를 한 후 권기호 회장이 내빈소개와 각 파종회장을 소개했다. 소개가 끝나자 권기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 10월 안동시 도산면서 부리에 위치하고 있는 선성현 문화단지를 탐방한 이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지역에는 각 문중을 비롯하고 작은 박물관이 17개가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탐방을 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30일 시조묘소 추향제 때는 각 파

대종회 건의 사항에서 권기수 별장공파 종회장은 "시조묘소가 안동에 있는데 당연히 대종회 회관도 안동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타 토의에서 능동장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관 규정대로 대종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타 토의가 끝나자 권기호 회장은 파종회장협의회를 위해 힘쓴 권인립 파종회장 협의회 고문과 권기원 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 대신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한지(韓紙)로 만든 양말 두 켤레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이 자리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태사묘 등지에 문화 탐방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및 시간관계상 탐방을 취소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과 권기호 복야공파종회장은 난(蘭) 화분을 각각 보내와 회의장을 빛냈다.

참석자들은 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방상'식당에서 안동간고등어를 겉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정답을 나누면서 영탁막걸리와 떡과일을 먹은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검교공파종회 추향제 및 정기총회



검교공파종회(회장 권무탁)는 지난 10 월 31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소재 숭덕산 파조(취) 혀(碑) 단소에서

추향제 및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하여 권오학 파종손이 현작을 드리며 간소하게

봉행하였다.

총회는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로 시작하였다. 권무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여건상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종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께서 참석하셨기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하며 파종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파이 발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느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철 고문이 파이 발간 진행과정을 보고한 후 수단비 지출 분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회원들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연꽃한우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비는 권정수 부회장이 전액 부담하였다. 총무부장 권영호

## 〈2020年 11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부해 주신 종보대금은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름순) 단위: 원

*권경상 30,000	권대석(서울서초) 30,000	권순창(안동) 30,000	권오부(부산) 30,000	권재수(광주) 30,000	권택문(예천) 30,000
권경석(대전) 30,000	권동각(서울성동) 30,000	권승찬(경기용인) 30,000	권오선(경산) 30,000	권종열(봉화) 30,000	권혁길(강릉) 30,000
권경순(서울관악) 30,000	권동식(경기남양주) 30,000	권연형(경주) 30,000	권오수(원주) 30,000	권중도(서울강북) 100,000	권혁도(수원) 30,000
권계술(부산) 30,000	권두채(전주) 30,000	권영근(안동) 30,000	권오신(안동) 30,000	권창만(당양) 30,000	권혁도(예천 예천읍) 30,000
권고덕(서울서초) 30,000	권만조(부산) 30,000	권영남(대구) 30,000	권오신(전주) 30,000	권창봉(서울구로) 30,000	권혁문(경주) 30,000
권기룡(경주) 30,000	권병산(정읍) 30,000	권영두(광주) 30,000	권오주(안동) 30,000	권천수(안동) 30,000	권혁준(대구) 30,000
권기만(안동) 30,000	권병성(서울노원) 30,000	권영록(합천) 30,000	권오천(청송) 30,000	권철진(창원) 30,000	권혁태(영주) 30,000
권기영(김포) 30,000	권사호(창원) 30,000	권영백(영주) 30,000	권오창(서울종로) 30,000	권칠훈(문경) 30,000	권호관(고령) 30,000
권기옥(경기이천) 30,000	권상만(평창) 30,000	권영부(김포) 30,000	권오천(김포) 30,000	권태근(평창) 30,000	권훈천(남해) 30,000
권기용(문경) 30,000	권성근(군산) 30,000	권영신(홍성) 30,000	권오학(포항) 30,000	권태문(안동)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기현(대구) 30,000	권성유(제천) 30,000	권영호(연천) 30,000	권오현(대구 달서구) 30,000	권태필(서울동작) 30,000	
권기형(대구 중구) 30,000	권성일(대구) 30,000	권영하(안동) 30,000	권오현(서울구로) 30,000	권태환(영덕) 30,000	
권기호(안동, 용상동) 30,000	권순욱(문경) 30,000	권영호(경기의정부) 30,000	권원희(창녕) 30,000	권태훈(대구) 30,000	권혁세(안동) 2,000,000
권달호(서울송파) 30,000	권순창(별장공파) 30,000	권오경(영양) 30,000	권이서(서울강서) 30,000	권태훈(서울영등포) 30,000	● 납부기간 : 10.28~11.30. ● 총 납부자 : 79명/지사 2곳 ● 금 액 : 총 5,040,000원